

| 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
| 배포일시 | 2021. 4. 13.(화)부터 보도바랍니다. | 담당자 | 과 장 | 차 주 일 |
| | | | 담 당 | 김 미 현 |
| 담당부서 | 의회사무국 홍보담당 | 연락처 | (033) 640-4063 | |

강릉시의회, 강릉해양경찰서 신설 건의

- 해양 치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강릉시에 해양경찰서 신설해야 -

강릉시의회(의장 강희문)는 12일 (월)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을 방문하여 강릉해양경찰서 신설을 다시한번 건의했다.

강릉시의회는 지난해 강릉해양경찰서 신설요청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지난해 6월 강릉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「강릉시의회 해양경찰서 신설 건의문」을 채택하고 국회, 행정안전부, 해양수산부 등 주요기관에 해당내용을 이송한 바 있다.

또한 강릉지역의 해양민원 출동건수는 17년에 267건, 18년에 336건, 19년에 37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, 속초·동해해경이 강릉지역을 분할하여 관리하는 이원 체계에서는 우리 시 해양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.

강희문 의장은 “강릉은 경포해변과 안목, 주문진, 금진 등 주요 관광지가 해안지역을 따라 형성되어 있음에도 지역 주민들은 해양 관련 민원 처리 시 속초와 동해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.” 며, “강릉해양경찰서가 하루빨리 신설되어 해양민원에 신속한 대처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,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바란다.” 라고 호소했다.

#사진1부 (별송) 끝.



▲강희문 강릉시의장(우)과 이명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(좌)이 강릉해양경찰서
신설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.